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 16면
제12회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전주매일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음 6월 6일) 제30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로운 전북… 민선8기 도정 '출발'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식

취임 앞서 첫날 민생현장 하나로마트 전주점 방문

부안 위도·동쪽 끝마을 무주 부평마을 주민 등 도민 2000여명 초대

"새로운 패러다임 통해 국가 미래 전북서 시작"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선 8기 '새로운 전북'을 꿈꾸는 김관영 도정이 지난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도지사 취임식이 열리면서 시작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 도청 실국장 등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군경묘지에 참배를 하는 것으로 첫 도정을 시작했다.

이후,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 생생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주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청취했다.

이어서, 전북도청에 등청해 사무인계 인수서 및 취임선서문 서명,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실국장 간부 신고 등을 통해 도정 운영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기자실을 찾아 민선 8기 새로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등을 통해 향후 도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구내식당 오찬 후에는 도내 국회의원 및 주요 기관장들의 접견을 진행하고, 취임식이 진행되는 도청 공연장 동으로 향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도민의 변화와 열망의 염원을 담은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은 도립국악단 식전 공연, 개식, 국민의례, 축전 소개, 취임 순서, 취임사, 민선 8기 도민 희망 메시지, 축하공연, 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취임식에는 미래세대 및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서쪽 끝 부안 위도와 동쪽 끝 무주 부평마을 주민, 청년 기업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도민 2000여명을 초대해 민선 8기 섬기는 전북도정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유종근·강형욱 前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및 도내 출신 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정당별 도당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빛냈다.

취임식 후에는 천년누리 광장으로 이동하여 황금소나무를 심었으며, 이어서 제12대 전북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 등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할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및 119 종합상황실 등을 찾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취임 일정을 끝마쳤다. /김경수 기자

3년 만에 돌아온 '나눔·비움·채움'

코로나19로 중단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개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가 3년 만에 도민의 곁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지난 2일,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서는 '2022년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이하 나비채음악회)'가 도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지난 1일 취임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나비채음악회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최영선)의 연주로 카르멘 서곡을 비롯한 12곡의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로 무더운 여름밤을 수놓았다.

음악회의 명칭인 나비채는 지혜와 자비를 이웃들과 나누고, 내 안의 욕망을 비우고, 빈 자리를 다시 지혜와 자비로 채우면서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비채 음악회는 송광사 주관으로 개최해 왔으며,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해 음악회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송광사는 음악회에 앞서 연꽃 등으로 만든 음식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연음식 만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김경수 기자

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 개개인 맞춤형 상담·교육 상시 운영

내달 말부터 컨퍼런스·아카데미 열고 본격 서비스 지원 홍보

9월부터 석달간 '다가가는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유형별로 제공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전라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노후 준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 도민들에게 노후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이 갖추어진 기관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높고 여러 기준들을 만족한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를 제공해 나간다.

우선 개개인 맞춤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오는 8월 말에서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노후준비 컨퍼런스'와 '아카데미(4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에서 11월까지는 특성화고·대학생,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가가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운영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노후준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노후준비지원팀(063-270-536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

최근 3년간 도내 발생 온열질환 사고 총 255건 수분 섭취 등 필요

전북소방본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했다.

지난 1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사고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는 총 255건으로 집계됐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온열질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의 27.8%(71건)가 70대에서 발생했다. 이어 80대가 19.6%(50건), 50대가 18%(46건) 순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주로 도로변(27.1%·69건)과 주택(23.5%·60건), 그리고 논·밭(21.6%·55건)으로 나타났다.

질환 유형별로 보면 열탈진이 141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38건(14.9%), 열실신 34건(13.3%), 열경련 33건(12.9%) 등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신체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낮 시간대(정오~오후 5시) 외부 활동 피하기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하기 △불가피하게 야외작업을 할 때는 중간에 시원한 곳 찾아 휴식 취하기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탈진 증세 느끼면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기 △밀폐된 차량 등에 어린이나 노인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기 등이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119구급대 온열환자 대비 출동 태세 구축, 구급대원 폭염 관리 응급처치 능력 강화,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